

## 김정은과 시진핑은 왜 ‘애국청년’을 호명하는가? :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교육 비교 연구\*

김 보 민\*\*

### • 요약 •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권은 애국주의교육을 통해 체제 결속에 힘쓰고 있다.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는 김정은 시기와 시진핑 시기에 호명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시진핑은 신시대애국주의를 제창하였다. 이 연구는 비교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신시대애국주의 교육의 위협요인과 대응방식을 구조화 한 뒤, 이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을 비교·분석하였다.

북한 애국주의교육과 중국 신시대애국주의교육의 공통적인 위협요인은 서구 문물의 영향에 따른 청년 세대의 사회주의 의식 약화, 청년 세대의 주체성 약화, 형식적인 기존 애국주의교육 방식이다. 애국주의교육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은 북한과 중국 모두 국가 차원에서는 법제화, 교육 분야에서는 내용과 방식에서의 혁신,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일상에서 애국심 고양 독려로 실행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에서 거버넌스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는 중국은 애국주의를 교육하는 것에 북한은 청년을 통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 오는 차이로 해석된다.

주제어 : 애국주의교육, 북한청년, 중국청년, 신시대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

## I. 문제 제기

‘애국’은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권을 설명하는 공통의 키워드다. 2011년 김정일의 사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 087933).

\*\*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망 이후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sup>1)</sup> 2012년 자신의 통치이데올로기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함께 ‘김정일애국주의’를 내세운다.<sup>2)</sup>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 정화”라고<sup>3)</sup> 강조하였다. 애국주의교양은 2015년 이전까지 정치사상교양 가운데 공산주의교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5대 교양의 한 분과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이 독립하게 된다.<sup>4)</sup> 북한 ‘사회주의도덕’ 교과서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2021년에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2023년에는 ‘사회주의애국운동’을 벌이면서 인민들의 사상무장을 촉구하고 있다.<sup>5)</sup> 시진핑 정권은 ‘신시대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애국주의교육 실시에 관한 요강인 ‘신시대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를 2019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애국주의교육을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부강한 중국’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의 애국주의 강조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급진 애국주의 세력인 소분홍(小粉紅)을 양산해내기도 했다. 2024년에는 ‘애국주의 교육법’을 시행하기까지 이른다.

김정은과 시진핑 정권은 왜 애국을 강조하며 애국주의교육에 힘쓰고 있는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약화한 현 상황에서 인민의 애국심이 체제를 유지하는 주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약화한 데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의 시장화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켰고 이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체제 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이 선택한 방안 중 하나가 애국주의 고조다. 북한은 탈냉전 시기에 고립을 겪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내부통합을 도모하였다. 2010년대 북한에서 애국주의교육이 재차 강조되기 시작한 것 역시 체제 위기와 관련이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정권 계승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시장화로 인하여 북한 인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공식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약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부터 정치사상 교양의 5대 교양 중 하나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이 실시 되었다.

---

1) 이하 ‘김정은’으로 약칭한다.

2)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을 ‘애국의 모범’으로 둔 사상으로 김정은이 2012년 7월 26일에 논문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3)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1(2012)년 7월 2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2012), p.8.

4) 북한 사전인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교양은 “사람들을 사회생활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게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5) 송영석, “북한, 경제난 극복 위해 ‘사회주의 애국운동’ 독려”, 「KBS」, 2023년 1월 24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5494>, (검색일: 2025.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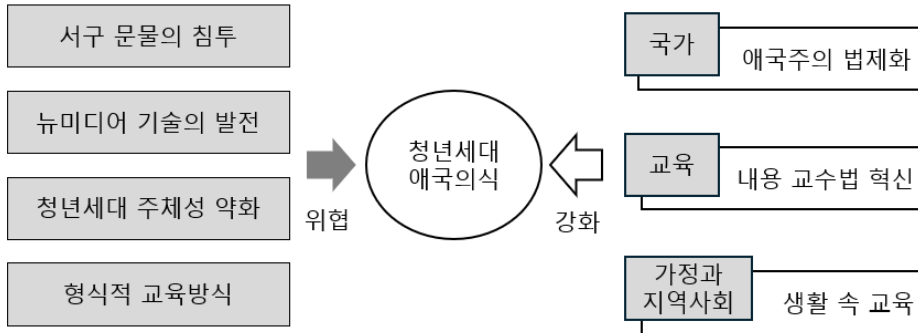
중국은 1990년대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면서 ‘중국적인 것’을 추구하여 애국심 고양을 통한 중국 인민들의 통합을 꾀하였다. 장쩌민 정권은 1994년에 ‘애국주의 교육실시강요’를 발표하며 애국주의 교육에 힘썼다. 시진핑 정권은 25년 후인 2019년에 신시대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를 발표한다. 신시대 애국주의교육 역시 대내·대외적 체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중국 인민의 서구 문물 접촉, 미중 무역갈등의 돌파구로 애국주의교육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sup>6)</sup>

이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신시대애국주의교육의 위협요인과 대응방식을 구조화 한 뒤, 이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애국주의교육을 살펴보는 것이다. II장에서 북한과 중국에서 애국주의의 경로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시기의 애국주의와 중국 시진핑 시기의 신시대애국주의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가 생산하는 애국주의 담론에는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당위가 담겨 있다. 당위 안에서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권이 감지하고 있는 체제의 위기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 정권이 체제의 취약성을 어떤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체제의 ‘약한 고리’인 청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북한과 중국의 미래 구상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애국주의교육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에서 애국주의교육 실시 후에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중국에서는 신시대애국주의교육 실시 후 당면한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왔다.<sup>7)</sup> 중국 신시대애국주의교육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구조의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6) 공봉진, “중국 ‘신시대(新時代) 애국주의’에 관한 연구-‘신시대 애국주의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2권 제4호, 2019, pp.135-136.

7) 郭頌霞, “直面挑战, 不断创新 -新时代大学生爱国主义教育研究”, 『陇东学院学报』, Vol. 32, No. 4, 2021, pp.106-109; 梁婷·黄伟良, “厚植新时代大学生爱国主义情怀 -意义、挑战与路径”, 『湖北开放职业学院学报』, Vol. 34, No. 22, 2021, pp.122-124; 孟宜林, “互联网时代学生爱国主义教育面临的挑战和机遇”, 『亚太教育』, No. 7, 2022, pp.13-15; 孙华峰, “新时代大学生爱国主义教育的价值意蕴、现实挑战及创新路径探析”, 『思想教育研究』, No. 8, 2022, pp.147-152; 于欢, “新时代高校爱国主义教育话语面临的挑战及对策”, 『北京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Vol. 38, No. 2, 2022, pp.154-161; 杜梅·蒋艳, “新时代高校爱国主义教育面临的挑战和应对”, 『大众文艺』, No. 17, 2023, pp.204-206; 赵丽·许美玲, “新时代高校爱国主义教育资源开发的机遇、挑战与路径选择”, 『黑龙江教师发展学院学报』, No. 43, Vol. 8, 2024, pp.34-38.



〈그림 1〉 중국 신시대애국주의교육의 위협요인과 대응

III장에서는 북한의 애국주의교육 사례를 중국 애국주의교육 분석틀에 기반하여 비교한다. 비교사회주의를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실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이 있다. 북한의 애국주의교육 관련 정황과 중국의 실정을 비교하면 북한의 현 애국주의교육 상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애국주의교육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국 사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중국의 교육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중학교 과정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학제 명칭과 일치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애국주의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 양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의 해외면에 중국 애국주의를 다루는 기사가 수차례 보도되었다. 2019년 10월 17일 「로동신문」 “애국주의교양에 힘을 넣고 있는 중국” 기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진행했던 애국주의 교양(교육)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sup>8)</sup>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교육의 연관성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다. 애국주의교육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조용하고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 싶다.

8) 립원, “애국주의교양에 힘을 넣고 있는 중국”, 「로동신문」, 2019년 10월 17일.

## II. 북한과 중국 애국주의교육의 경로

### 1. 국제주의적 애국주의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는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전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이 강했던 초기에는 국제주의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소련 해체 이후에는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었다. 1950년대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주의 인식을 수용하였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우선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대신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고 부르며 인민을 통합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다. 김일성은 소련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1954년 5월 교통운수부문모범일군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공식화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소련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차용한 것에는 전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호소하기 위해서였으며, 전후 복구를 위해 인민을 추동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sup>9)</sup> 1967년 갑산과 숙청 이후로 북한 내에서 유일사상체계가 구축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도 그 영향을 받는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수령에 대한 사랑"의 맥락 내에서 서술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수령에 대한 사랑과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 되는 것"으로 변형되었다.<sup>10)</sup> 김정일이 1986년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고 북한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전면화된 이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화된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선혁명에 집중해야 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선언했다.<sup>11)</sup>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북한 만의 방어 논리가 필요했고<sup>12)</sup> 이는 '우리 식' '조선 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공산당 역시 애국주의를 민족주의와 분리한 사상으로 언급했다. 민족주의가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사상"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마오쩌둥 역시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애국주의자였

9) 강혜석, "북한 민족주의론의 원형과 정치적 동학(1945~1985):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과의 비교", 『북한 연구학회보』, 제21권 제2호, 2017, pp.136-138.

10)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근로자』, 1968년 제8호, p.5.

1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p.371.

12)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 2001, pp.245-247.

지만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을 수식할 때 애국주의자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금기시 해온 것이다.<sup>13)</sup> 또 중국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분열을 방지하고자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본 측면도 있다. 중국공산당은 애국주의를 민족주의와 분리하는 대신 국제주의와 연계하여 서술했다. 애국주의는 다른 국가의 인민들과 친선과 협력을 말하는 국제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up>14)</sup> 덩샤오핑 지도부는 개혁개방으로 인한 대내적인 이데올로기 혼란을 애국주의를 통하여 돌파하려고 했다.<sup>15)</sup> 1980년대 들어 대만, 홍콩 등의 통일을 추구하며 “중화민족의 통일대업”을 말하면서 중국에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언급된다.<sup>16)</sup>

## 2. 탈냉전과 민족주의 경향 심화

탈냉전으로 인한 ‘사회주의권’의 부재는 북한과 중국에게 각자도생의 길을 걷도록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강한 체제 내 결속이 필요했으며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강화로 중국에서는 애국주의교육의 강화로 이어진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해체는 북한에게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 상당한 위기감을 주었다. 특히 독일 통일의 사례는 남한과의 흡수통일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고 이에 북한 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대응하였다. 김정일은 1992년 2월 4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담화에서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말했다.<sup>17)</sup>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연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위협받는 체제의 존립을 주체성과 민족성에 두려고 한 것이었다. 이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기에 이어지는 기조였다. 김정일 시기 북한 당국은 ‘우리 민족끼리’를 내걸고 남북교류를 추진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여 체제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1990년대 중국공산당은 대외, 대내적으로 위기감을 감지하고 ‘강한 중국’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첫째, 대외의 위협이다. 1989년 톈안먼 사건 후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겪은 중국은 체제의 위기를 인지하고 내부 체제 단속을 단행한다.<sup>18)</sup> 서구에서는 ‘중국위협론’이 떠올랐고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위협론에 대항하

13) 정신철, 「중국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노태구 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서울: 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1997, pp.72-75.

14) 위의 책, p.75.

15) 김인희, “중국의 애국주의교육과 역사허무주의”, 『한국사학사학보』, 제38권, 2018, p.355.

16) 정신철, 앞의 책, p.75.

17)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12.

는 '강한 중국'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졌다. 둘째로 대내에서는 개혁개방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하는 위기가 발생했다. 1990년에 장쩌민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일부 청년 지식인들이 서양 부르주아 계급의 인생관, 가치관, 민족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하고 진단하면서 "학습과 실천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애국주의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sup>19)</sup> 서방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면서 '중국적인 것'을 추구하여 중국 인민들의 통합을 꾀하는 이데올로기가 애국주의였다. 1990년대 중국의 애국주의는 '중국적인 것'을 추구해야 했기에 이전 애국주의와 달리 유가 같은 중국의 전통적 요소를 도입하였다.<sup>20)</sup> 이러한 배경에서 1994년에 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가 발표되면서 전 학교와 사회적으로 애국주의교육이 중국에서 이뤄지게 된다. 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는 중화민족의 전통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조하였다.<sup>21)</sup>

### 3. 신(新)애국주의의 부상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출범과 함께 애국주의라는 기치를 들고 나온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김정일애국주의로 호명하고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교육을 전 인민적으로 실시한다. 김정일애국주의의 강조는 1990년대 이후 또다시 찾아온 체제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 첫째로 김정은의 계승 문제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이후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은 정당성의 위기를 맞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선언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김정은이 체계화한 이데올로기다.<sup>22)</sup> 이는 "김정은이 전대 수령들의 이론을 심화시킴으로써 '혁명사상의 발전풍부화'라는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sup>23)</sup> 자신이 정통성이 있는 후계자라는 점을 인민에게 알리면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다. 3대 세습의 사상적인 정통성을 이데올로기의 주장을 통하여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sup>24)</sup> '김정일애국주의'

18) 이동윤, "90년대 중국 애국주의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제21권, 2001, p.323.

19) 江泽民, "爱国主义和我国知识分子的使命", 『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读本』, 北京: 学日出版社, 1992, p.36.

20) 이동윤, 앞의 논문, p.322.

21) 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의 7항은 "중화민족의 오랜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 8항은 "중화민족의 우수 전통 문화를 교육한다", 13항은 "민족단결 교육을 해야 한다"이다. 中共中央宣传部宣传教育局 编, 『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读本』, 北京: 学日出版社. 1992, pp.50-53.

22) 김근식, "김정은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우승지 편, 『김정은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정인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4, p.43.

23)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pp.44-45.

선대 지도자의 이름을 붙인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시 김정은이 자신의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세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김정일 애국주의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차별성을 가진다. 김정은은 “나는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애국주의 일반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지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합니다”와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 정화” 같은 표현으로 기존 애국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sup>25)</sup>

둘째로 앞서 언급했던 북한 인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에 대한 공식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약화다. 1990년대 후반 경제난 이후 2000년대를 지나면서 북한은 급격하게 시장화 되었다. 시장화를 경험한 세대를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주체사상, 사회주의와 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이전 시기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이들은 비교적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은 교육을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였고 집권 첫 해인 2012년부터 교육제도 개혁을 실시하였다. 사상교육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2015년부터 정치사상 교양의 5대 교양 중 하나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이 실시되었다.

시진핑 정권 역시 출범하면서 애국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신시대애국주의’라는 명칭을 만들어낸다. 중국공산당은 시진핑이 총서기가 된 후에 중국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신시대의 목표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애국주의를 강조하였다.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애국’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주의와 집단주의와 더불어 애국주의 정신을 심화해야 함이 강조되었다.<sup>26)</sup> 2015년 12월 30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29차 집체학습의 주제는 ‘중화민족애국주의정신의 역사적 형성과 발전’이었다.<sup>27)</sup>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애국주의는 중화민족 정신의 핵심이며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28)</sup> 2019년 11월에는 신시대애국주의교육의 지침인 ‘신시대

24) 김근식, 앞의 책, p.44.

25)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1(2012)년 7월 2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p.8.

26)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中国政府网」, [https://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htm](https://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htm), (검색일: 2024.11.26.).

27) 집체학습(集体学习)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정기적으로 특정 주제를 상정, 발표하고 토론하는 집단 학습제도”로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집체학습을 직접 주재하며 중앙정치국 전원이 참여하며 중앙정치국 구성원이나 국가급 싱크탱크 구성원 혹은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뤄진다. 임진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集体学习) 분석-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2023, p.156.

28) “习近平主持中共中央政治局第二十九次集体学习”, 「新华网」, 2015년 12월 30일, <http://www.xinhuanet.co>



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가 발표되었다. 이 ‘신시대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는 2023년 애국주의교육법 제정으로 법제화된다. 이렇게 애국주의교육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시진핑 정권의 위기의식과 관련이 있다. ‘중국위협론’을 바탕으로 한 서구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인민이 단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상교육을 강화한 것이다.<sup>29)</sup> 특히 학교에서의 애국주의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시진핑 정권의 비전이 ‘2개의 100년’의 두 번째 100년인 2049년까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30)</sup> ‘신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상교육을 강화하면서<sup>31)</sup> 이들이 중심이 된 미래의 민족 부흥을 담보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 Ⅲ.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 위협요인과 대응방식 비교

#### 1. 중국 신시대애국주의교육 위협요인과 대응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중국 신시대애국주의교육의 위협요인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문물의 영향에 따른 청년 세대의 사회주의 의식 약화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세계시민의식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년들이 국내 사회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절감을 겪었거나 이상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서구의 사상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의구심과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찬양을 유발한다고 본다.<sup>32)</sup> 자본주의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하여 중국 일부 청년 사이에서 ‘역사허무주의(历史虚无主义)’ 사조가 생겼다고 본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반성하려고 하며, 중국의 전통문화와 홍색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역사허무주의는 애국주의교육의 주요 위협요인이라는 것이다.<sup>33)</sup> 중국에서는 미국 문화뿐 아니라 한

m//politics/2015-12/30/c\_1117631083.htm, (검색일: 2025.01.22.)

29) 방성운, “시진핑 시기 중국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강화와 신시대 애국주의교육”, 『대한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2024, p.192.

30) ‘2개의 100년’이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을 가리킨다. 첫 번째 100년의 목표는 소강사회 건설이며, 두 번째 100년의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다. 시진핑 정권은 현대화 국가 건설에 있어서 현대화된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며 시진핑 사상 교육에 힘쓰고 있다. 공봉진·김창경, “시진핑 시대 중국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2020, pp.291-296.

31) 공봉진·김창경, 위의 논문, p.297.

32) 郭頌霞, 위의 논문, p.107.

국, 일본의 문화 역시 자본주의 가치관을 함양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주의교육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향유하는 청년들의 태도가 “특히 과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4)</sup> 타문화를 중국의 문화보다 숭상하는 태도가 중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허위정보’의 유통을 청년들의 애국의식에 있어 큰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청년들은 쉽게 외부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며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뉴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정보에 대한 분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은 또래집단의 의견에 호도되기 쉽기 때문에 청년들이 인터넷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민족 영웅을 폄하하는 등의 사례를 뉴미디어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로 드는 것을 고려했을 때<sup>35)</sup> 인터넷 여론을 세밀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중국 당국의 가장 큰 고민으로 보인다.

셋째는 청년 세대의 주체성 약화다. 최근 중국의 청년 세대 사이에서 “탕평(躺平·바닥에 평평하게 누워 있음)”이라는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는 사회에서의 지나친 경쟁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성공을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고 최소한의 삶의 요건만 가지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청년 세대들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청년 세대의 사조가 애국주의 교육의 걸림돌이며 서구 사상의 영향이라고<sup>36)</sup> 해석하기도 한다. 경제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가 청년 세대의 주체성 약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생활고를 거의 경험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은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고난의 역사에 관심이 없으며 이는 성취 의식과 애국 감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sup>37)</sup>

넷째는 애국주의교육 방식의 문제점이다. 전통적인 애국주의교육은 주입식, 설교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의 교육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있다.<sup>38)</sup> 또한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애국주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39)</sup>

중국 학계에서는 신시대애국주의교육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33) 孙华峰, 앞의 논문, p.149.

34) 郭颂霞, 앞의 논문, p.107

35) 梁婷·黄伟良, 앞의 논문, p.123.

36) 孙华峰, 앞의 논문, p.149.

37) 徐国正·刘文成, 앞의 논문, pp.103-104.

38) 孟宜林, 앞의 논문, p.14.

39) 孙华峰, 앞의 논문, p.150.

하고 있다. 2019년 발표된 애국주의교육 국가 지침인 신시대애국주의교육강요를 바탕으로 한 국가, 교육(내용과 방법론), 지역사회와 가정 차원에서의 방안들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제화, 교육 분야에서는 내용과 방식에서의 혁신,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일상에서 애국심 고양 독려 등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실제로 애국주의교육 법제화가 실시되었다. 애국주의교육법 제정(2023)과 실시(2024)가 이루어졌다. 애국주의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은 애국주의교육에 대한 국가의 합법적 권위를 강화하고 애국감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sup>40)</sup> 신시대애국주의교육강요가 지침이라면 애국주의교육법은 이를 합법화한 것이다. 법의 강제성을 활용하여 애국주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고도 하였다. 특히 온라인상의 역사허무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에 형법 조문을 개정하여 “영웅 및 열사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보호관찰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2021년 3월부터 실행하였다.<sup>41)</sup>

## 2. 북한 애국주의교육의 위협요인과 대응

앞에서 서술한 중국 애국주의교육의 위협요인과 그 대응을 북한 사례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구 문물의 침투, 청년세대 주체성 약화, 형식적 교육방식은 북한 역시도 애국주의교육에 있어서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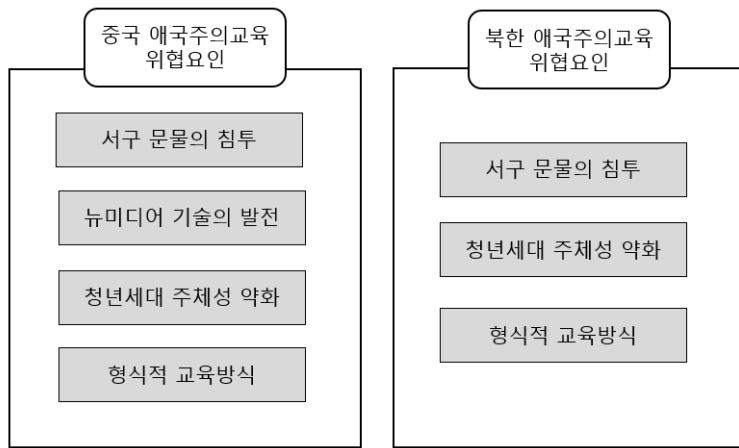
우선, 북한 역시 중국처럼 서구 문물의 침투를 애국주의교육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청년 세대에게 애국과 함께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특히 강조하기 시작한 때가 8차 당대회다.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전면적으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청년 세대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커졌다. 8차 당대회에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근로단체들의 사상교양단체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특히 청년동맹을 당의 교대자, 후비대로 “억세계 준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sup>42)</sup> 4월 6~8일에 열린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도 청년교양사업에 주력을 다할 것이 과업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당대회 후속 조치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가 2021년 4월 27~28일에 개최되었다. 제10차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이 ‘김일성-김정일주의청

40) 徐国正·刘文成, 앞의 논문, p.106.

41)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十一)”, 「中国政府网」, [https://www.gov.cn/xinwen/2020-12/27/content\\_5573660.htm](https://www.gov.cn/xinwen/2020-12/27/content_5573660.htm), (검색일: 2025.01.22).

4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보고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9일.

년동맹’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되었다. 제10차 대회에 김정은이 보낸 서한을 보면 당시 김정은 정권이 청년세대의 사상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사상교육에 힘쓰게 되었을까?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외부 문물의 침투에 청년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반동적사상문화가 “악성종양과 같다”면서 청년동맹이 사소한 요소들을 알아차려서 사전적으로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sup>43)</sup>



(그림 2) 중국 애국주의교육 위협요인과 북한 비교

청년 세대의 주체성 약화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은 “지금의 청년세대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나서 자라다보니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제함과 표상이 부족하며 지어 일부 잘못된 인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한다.<sup>44)</sup> 청년 세대가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 역사에 관심이 적으며 이로 인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기 쉽다는 것이다.

애국주의교육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 역시 북한 당국이 인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청년 교양의 새로운 방식”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른”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sup>45)</sup> 북한은 틱톡(抖音), 비리비리(哔哩哔哩) 같은 뉴미디어가 발달한 중국만큼 정보기술 접근성이 높고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다. 휴대전

4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서한을 보내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1년 4월 30일.

44) 위의 기사.

45) 위의 기사.

화 사용 경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통제되어 있다.<sup>46)</sup> 그런데도 북한 역시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 부작용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있다. 선전 선동에 있어서 ‘현대과학기술과 정보기술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또 애국주의교육이 “설교나 주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생활에 밀착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sup>47)</sup> 기존 주입식, 설교식 애국주의교육에 대한 중국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애국주의교육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역시 중국과 북한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 애국주의교육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21년 9월 29일에 채택된 청년교양보장법은 1장 청년의 임무 중 “애국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4장에서는 “집단주의 사상과 애국주의, 고상한 인생관을 지닌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키워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년들을 애국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교육 방법론에서의 혁신도 진행되고 있다. 2022년 12월 말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강조한 후 이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에서 정치사상 과목의 교수안이 새롭게 집필되었다.<sup>48)</sup> 북한 당국이 애국주의교육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애국주의교양 배양’이다. 또 전 사회적으로 청년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며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사회,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상교양 역시 법적으로 규정된 부모가 해야 할 의무이며 부모는 “자식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탄원하도록” 해야 한다.<sup>49)</sup>

### 3. 북한과 중국 애국주의교육의 차이점

이상으로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교육에 위협요인과 그 대응을 비교하였다. 북한과 중국 모두 서구 문물의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애국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특성이 애국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본다. 또한 기존 교육 방식의 문제점이 청년 세대의 애국주의 교육의 장애요인이라고 본다. 이에 대응하여 법

46) 2016~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였다.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다는 응답자는 2.1%에 그쳤다. 통일부 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서울: 통일부, 2024, pp.203-204.

47)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3월 29일.

48) 공로혁, “수백건의 새 교수안작성 추진”, 『로동신문』, 2023년 4월 22일.

49) 국가정보원 편, 『北韓法令集. 下』, 국가정보원, 2024, p.836.

제화, 교육 방법론 개혁, 생활 속 교육이라는 유사한 방안을 채택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교육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은 거버넌스가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은 신시대애국주의교육에 대한 지침을 2019년 11월에 발표하고 이에 근거한 법령인 애국주의교육법을 2023년 10월에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전 사회적으로 애국주의교육을 선전하고 실천 방안들을 마련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북한의 경우, 매우 단기간에 애국주의교육의 강조와 법제화가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와 4월 청년동맹 10차 대회, 9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으로 8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수령과 당의 교시, 지시가 최우선 순위인 북한의 체제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중국과 북한의 애국주의교육에 대한 정책 구분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은 신시대애국주의 교육 정책을 시행한 한편 북한 당국의 경우에는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교육 안에서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시행하였다. 이는 애국주의교육 법령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중국은 신시대애국주의교육법,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이다.

애국주의교육 법령의 세부 내용을 보면 법 제정의 목적에서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국의 경우에는 애국주의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애국주의교육 담당 부서를 언급하고 시행 방안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북한의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사회주의애국주의 구현, 고상한 도덕기풍 확립 같은 ‘청년의 임무’와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북한에서 청년 세대의 일탈 행위를 당국이 심각하게 본 것이<sup>50)</sup>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의 애국주의교육 가속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투쟁과 단속이 이뤄졌으며 청년동맹의 사상교육에서의 역할도 강조되었다. 2020년대 북한의 애국주의교육은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뤄졌다기보다는 내부 통제의 측면이 심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교육’에 북한은 ‘청년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50) 문동희, 북한, 청년교양법 위반 시 교화 10년형...젊은 층 “어이가 없네”, 데일리 NK, 2022년 2월 16일, <https://www.dailynk.com/20220216-1>, (검색일: 2025.01.22).

#### IV. 북한과 중국 애국주의교육의 시사점

이 연구는 비교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교육의 공통 경로를 파악하고, 시진핑 정권이 당면한 애국주의교육 문제점을 김정은 정권의 북한과 비교하였다.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전한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는 김정은 시기와 시진핑 시기에도 다시 호명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시진핑 정권은 신시대애국주의를 제창하였다. 두 정권은 청년 세대에 대한 애국주의교육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신시대애국주의교육강요 발표 후 애국주의교육에 대한 위협요인의 분석들이 학계에서 진행되었는데 위협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문물의 영향에 따른 청년 세대의 사회주의 의식 약화다. 둘째,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허위정보의 유통이다. 셋째, 청년 세대의 주체성 약화다. 넷째, 주입식 설교식의 기존 애국주의교육 방식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뉴미디어 기술을 제외하고 북한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북한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반사회주의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한 단속과 압박을 강화하였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김정은의 발언으로부터 청년 세대의 주체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기존 주입식, 설교식 애국주의교육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애국주의교육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은 북한과 중국 모두 국가 차원에서는 법제화, 교육 분야에서는 내용과 방식에서의 혁신,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일상에서 애국심 고양 독려로 실행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애국주의교육에서 거버넌스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는 중국은 신시대애국주의교육법,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애국주의교육 법령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애국주의를 교육하는 것에 북한은 청년을 통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북한 당국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사상 통제를 내부적으로 강화하였다. 청년교양보장법 실시 이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채택을 통해 외부 문물의 소지, 유통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다. 청년교양보장법에서도 청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불순출판선전물 유입, 제작, 유포, 시청 등”이 명시되어 있다. 팬데믹, 대북제재, 자연재해 3중고를 겪는 동안 체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청년이라고 보고 체제의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애국주의교육을 활용한 것이었다. 시진핑 정권에게도 청년 세대에 대한 통제라는 목적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정책으로서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장기적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 미래 세대 양성에 더 초점을 두고 애국

주의교육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다.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인 북한과 중국은 경제위기와 청년 세대의 이탈이라는 체제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공통점은 체제 내부 문제를 외부의 적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권 모두 청년 세대의 사회주의 의식 해이를 서구의 책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구 문물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사회주의적인 문화를 청년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심지어는 서구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혁명의 역사를 외면하고 ‘탕핑’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역사허무주의나 ‘탕핑’과 같은 현상, 외부 문화를 선호하는 현상은 체제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가 청년 세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 외부의 공세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근본적인 체제의 문제를 직시하여 해결하지 않고 청년 세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청년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장기 지속을 예정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에 있어서 청년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해석. “북한 민족주의론의 원형과 정치적 동학(1945~1985):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과의 비교”,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제2호, 2017.
- 공로혁. “수백건의 새 교수안작성 추진”, 『로동신문』, 2023년 4월 22일.
- 공봉진. “중국 ‘신시대(新時代) 애국주의’에 관한 연구-‘신시대 애국주의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2권 제4호, 2019.
- 공봉진·김창경. “시진핑 시대 중국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제65집, 2020.
- 국가정보원 편. 『北韓法令集. 下』, 국가정보원, 2024.
- 김인희. “중국의 애국주의교육과 역사허무주의”, 『한국사학사학보』, 제38권, 2018.
-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담화 주제101(2012)년 7월 2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 김정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9.
-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2호, 2013.
- 노태구 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서울: 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1997.
- 림원. “애국주의교양에 힘을 넣고 있는 중국”, 『로동신문』, 2019년 10월 17일.
- 문동희. 북한, 청년교양법 위반 시 교화 10년형...젊은 층 “어이가 없네”, 데일리 NK, 2022년 2월 16일, <https://www.dailynk.com/20220216-1>, (검색일: 2025.01.22).



- 방성운. “시진핑 시기 중국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강화와 신시대 애국주의교육”, 『대한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2024.
- 송영석. “북한, 경제난 극복 위해 ‘사회주의 애국운동’ 독려”, KBS, 2023년 1월 24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85494>, (검색일: 2025.01.22.)
- 우승지 편. 『김정은시대의 정치와 외교: 선군인가, 선경인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14.
- 이동윤. “90년대 중국 애국주의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제21권, 2001.
- 임진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集体学习) 분석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2023.
-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4권 제2호, 2001.
-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강력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3월 29일.
- 통일부 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 2024.
-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근로자』, 1968년 제8호,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서한을 보내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1년 4월 30일.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보고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9일.
- 江泽民. 『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读本』, 北京: 学日出版社, 1992.
- 郭颂霞. “直面挑战, 不断创新 -新时代大学生爱国主义教育研究”, 『陇东学院学报』, Vol. 32, No. 4, 2021.
- 杜梅·蒋艳. “新时代高校爱国主义教育面临的挑战和应对”, 『大众文艺』, No. 17, 2023.
- 梁婷·黄伟良. “厚植新时代大学生爱国主义情怀 -意义、挑战与路径”, 『湖北开放职业学院学报』, Vol. 34, No. 22, 2021.
- 孟宜林. “互联网时代学生爱国主义教育面临的挑战和机遇”, 『亚太教育』 No. 7, 2022.
- 孙华峰. “新时代大学生爱国主义教育的价值意蕴、现实挑战及创新路径探析”. 『思想教育研究』. No. 8, 2022.
- 于欢. “新时代高校爱国主义教育话语面临的挑战及对策”. 『北京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Vol. 38, No. 2, 2022.
- 赵丽·许美玲. “新时代高校爱国主义教育资源开发的机遇、挑战与路径选择”, 『黑龙江教师发展学院学报』, No. 43, Vol. 8, 2024.
- 中共中央宣传部宣传教育局 编. 『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读本』, 北京: 学日出版社, 1992.
- “习近平主持中共中央政治局第二十九次集体学习.” 『新华网』, 2015년 12월 30일,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12/30/c\\_1117631083.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5-12/30/c_1117631083.htm), (검색일: 2025.01.22).
-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十一).” 『中国政府网』, [https://www.gov.cn/xinwen/2020-12/27/content\\_5573660.htm](https://www.gov.cn/xinwen/2020-12/27/content_5573660.htm), (검색일: 2025.01.22).
-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中国政府网』, [https://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htm](https://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htm), (검색일: 2024.11.26).

【 Abstract 】

Why Do Kim Jong-un and Xi Jinping Invoke ‘Patriotic Youth’?  
: A Comparative Study of Patriotic Education in North Korea and China

Bomin, Kim

The regimes of Kim Jong-un and Xi Jinping have focused on strengthening regime cohesion through patriotic education. The patriotic ideologies developed in North Korea and China, which followed similar processes, share commonalities in that they were both invoked during the periods of Kim Jong-un and Xi Jinping. Kim Jong-un espoused Kim Jong-il’s Patriotism, while Xi Jinping advocated for the Ideology of Patriotism in the New Era. This study, adopting a comparative socialist perspective, structures the threats and responses to China’s patriotic education in the new era and uses this framework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Korea’s patriotic education.

The common threats to both China’s new era patriotic education and North Korea’s patriotic education include the weakening of socialist consciousness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due to Western influences, the erosion of the youth’s sense of agency, and the formalistic nature of existing patriotic educa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se threats, both North Korea and China have implemented measures at the state level, including legalization, innovations in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and the promotion of patriotism in students’ daily lives through family and community involvement. A key difference in governance is evid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China focusing more on educating patriotism and North Korea placing greater emphasis on controlling the youth, which is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their respective national priorities.

**Key Words** : Patriotic education, North Korean youth, Chinese youth, Ideology of Patriotism in the New Era, Kim Jong-il’s Patriotism

---

• 논문투고일 : 2025년 1월 23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2월 13일